박원자의 母情佛心 ⑧ 황벽 선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황벽 희운 선사는 임제, 배휴 등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선지식이다. 그의 명성을 들었던 모친은 선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선사는 매정하게 모친을 내쳤다. 이는 자녀에 대한 사랑마저 허망함을 알게 하기 위한 선사의 법문이었다.

"내 어머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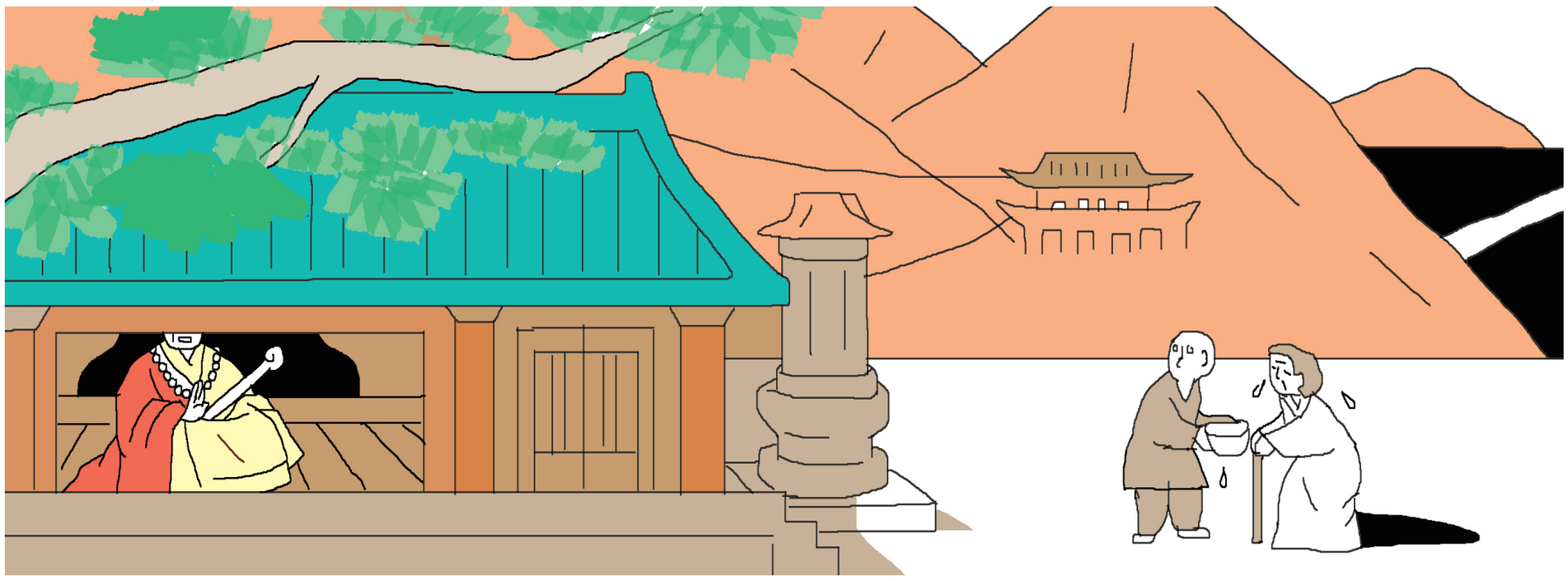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얼마 전 출가한 지 반세(半世)를 훌쩍 넘기신 한 노스님께 여쭈었다. "출가란 뭘까요?"

스님께서 답하셨다. "출가란 내가 머물던 작은 집을 나와 우주를 내 집으로 삼아 사는 길이지요."

우주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것을 경험한 노스님의 내면세계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그런데 자식이 선택한 출가의 길이 이렇게 자유로운 길임을 눈물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알까?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어머니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날 노스님께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다가 잠시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어머니께서 아흔 살이 넘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란다. "네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 매일 동네 버스정류장에 나가 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렸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상상해본다.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행여 돌아올까 막차 시간까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젊은 어머니를. 그 젊은 어머니가 아흔 살이 넘어 비로소 '네가 돌아오지 않아 그토록 매일 기다렸다' 고 고백하는 장면을.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가슴 저려도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응원하며 입을 다문다. 너의 삶이 옳다 그르다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관세음보살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이 분별하는 한 생각이 비어있음을 깨달은 보살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다가올 미래에도 두려움이 없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화려한 현재를 산다.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걸 감으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 싶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의 어느 작은 절의 신도 회장을 지내셨다. 불사를 한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권선을 하고 아버지를 앞세워 시주도 적지 않게 했다.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따라갔다. 수십 년 전 젊었을 때다. '삼귀의' 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진행되고 있었다. 잠깐 실수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도 보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법명을 여쭤보니 없다고 했다. 그러니 〈반야심경〉을 외울 리 없었다. 뜻은 더더군다나 모르셨을 것이다. 절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지금은 절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엔 어머니와 같은 신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은 〈반야심경〉의 뜻을 몰랐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이 더 관세음보살로 사셨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초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전을 읽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보살이 아니었나 싶다. 일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웠지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어머니도 자유롭고 자식도 자유롭다. 어머니가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식도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불가에서는 황벽 선사가 그의 어머니를 매정하게 대해 제도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한 후 부모님과 절연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이 도의 시작임을 가르치려했던 것일 테지만, 세속 사람들에겐 출가의 길이 그처럼 비정한 길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황벽 희운(?~850) 선사는 당나라 백장 회해 스님의 제자다. 복주 민현 사람으로 홍주 황벽산으로 출가해 득도했다. 임제, 배휴 등 훌륭한 제자를 두었다. 당시 재상을 지낸 배휴는 황벽 선사의 법문집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불자들이 애독하는 〈전심법요〉가 그 책이다. 그의 제자 임제 선사가 나와 임제종을 열었으니 황벽 선사는 임제종의 새벽을 연 원조인 셈이다. 〈전심법요〉에서 그는 이렇게 설했다.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본래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애착을 놓은 그 무심의 자리가 곧 자유라는 것이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고 본래 마음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한 것이리라.

중국선종의 10대 조사 황벽 희운
모친 찾아와도 매정하게 내치며
자녀 사랑마저 허망함을 가르쳐

뛰어난 도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
선사 아들 가르침으로 극락 왕생

황벽 스님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황벽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지아비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는 반색했다. 아들이 서역에서 온 법을 배우겠다고 하니 신학문을 배운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두말없이 허락했다. 그런데 아들은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오리라 여기며 기다렸다. 인고의 삶을 사는 데 명수들인 어머니 아닌가. 그러던 중 소문이 들려왔다. 아들이 훌륭한 스님이 되어 황벽산의 어느 절에서 수천 명의 스님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이야기였다.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어머니가 살던 복주에서 아들이 있는 홍주까지는 천오백 리의 먼 길이었다. 몇 달 동안을 걷고 걸어 아들이 있는 절 문 앞에 이르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무소를 먼저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은 황벽 선사는 만나주기는커녕 시자에게 일렀다. "내 어머니이지만 쌀 한 톨 물 한 모금 드리지 말고 돌려보내라."

인정이 남아있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불가의 가르침을 자신부터 철저히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후학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먼 길을 걸어 한 산중의 지도자가 된 아들을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일설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민가에 방을 얻어 놓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이 이야기를 가장 실감나게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해주신 분은 해인사 방장을 지내신 법전 스님이다),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강가에 이르렀다가 하도 배가 고파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황벽 선사가 듣고 어머니를 화장해 드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올렸다고 한다.

나는 것도 본래 남이 없고
멸하는 것도 본래 멸함이 없도다
생멸이 본래 비었으니
본래면목의 실상은 항상 머물러 있도다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가 모를 리 없다. 이 게송을 듣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다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들의 꿈에 나타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었다면 다겁생으로 내려오던 모자지간의 정을 끊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쫓겨나올 때 그 끈질기게 남아있던 마음 속 정이 다 끊겼다. 그 공덕으로 이제 천상으로 가니 너의 은혜는 말할 수 없구나."

황벽 선사가 매정하게 어머니를 대해 어머니를 제도한 이야기는 그 후 수많은 스님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손자의 안부가 궁금해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멀리 암자로 숨어버리기를 수차례, 결국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모님이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을 보고도 이웃 암자에 꼭꼭 숨어 나오지 않았다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도 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 출가한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며 절에 전화를 놓아드리면 안되겠느냐고 문의한 어머니도 있었다.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해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 마디 말에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황벽 선사의 말이다. 어머니를 왜 그리 매정하게 대했는지, 출가자의 효도는 진정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말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존재 자체로 관세음보살이지만 황벽 선사 어머니의 경우는 도인이 된 자식으로 인해 관세음보살이 된 경우가 아닐까 싶다.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